신랑예수와 친구예수의 차이

(마16:13-17)

13.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15.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신랑예수와 친구예수의 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신랑으로 여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친구로 여기면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자기기만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보면 ♬ 예수 내 친구 ~ ♬ 그런 가사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인데, 다니던 동네 교회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시던 말이 그 찬송가 가사였어요. '예수 내 친구'라는 말은 옳지 않은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목사님의 이유는 '감히' 예수님을 어떻게 친구라고 부르느냐? 라는 뜻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친구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목사님께서 생각하셨던 '감히'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부관계와 친구관계의 차이를 보면 신랑 예수와 친구예수가 어떻게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바른 길을 찾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와 친구가 어떻게 다르죠?
한 여자 분이 푸념처럼 쓴 사연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좋아져서 연애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 안 계시고, 남편은 삼형제 중의 장남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당시에 둘째 시동생은 군에 가있었고, 막내시동생을 데리고 함께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방 두 칸의 좁은 집에 거실도 따로 없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학생인 막내시동생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막내시동생이 군에 갔을 때 둘째 시동생이 제대를 하게 됩니다.
1년 가까이 백수노릇을 하며 집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루 두 끼를 꼬박 차려주어야 합니다, 아침은 늦게까지 자느라 안 먹습니다.
막내시동생에 비해 어찌나 성격이 까탈스럽고, 입이 짧고, 자존심이 강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정말 다행스럽게도 둘째 시동생이 취직을 하고, 막내시동생이 제대를 해서 두 시동생을 함께 거느리고 삽니다, 그나마 취직을 했기에 망정이지요.
또 막내시동생이 취직을 못하고 백수생활을 하다가 겨우 취직을 했지만 1년이 채 못돼서 월급을 3개월 못 받게 되면서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는 야간대학원을 다닙니다.
막내시동생이 1년 9개월가량을 백수노릇하고 야간대학원에 다니고 하다가 취직을 했어요.
'아, 이젠 됐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둘째 시동생이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이런 푸념을 적은 글을 봤습니다.
이렇게 시동생 둘을 데리고 9년 세월을 지냅니다.
신혼의 재미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시동생에 치어서.
장가도 안 가고, 취직도 들쭉날쭉 하고…

이게 부부예요.
결혼하기 이전의 남편이 자기가 중심에 서있으면서 사방으로 맺고 살았던 그 모든 관계를, 결혼하면서 이 아내가 떠맡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부관계예요.

그러나 이 여자 분의 친구가 있다 합시다, 당연히 친구가 있겠지요?
어떤 친구도 이 여자가 감당하고 있는 관계를 대신 해주는 친구는 없어요.
나에게 베스트프랜드, 베프가 있다고 해서 그가 내 아버지 어머니, 내 형제들과의 관계를 감당해주지는 않습니다.
부모관계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옆에서 그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결혼한 친구들끼리 사정이 어려우면 돈을 빌려주기도 합니다만 관계를 떠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이 다른 것은 관계를 떠맡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친구사이에서는 기존의 내 관계는 내가 관계할 뿐입니다, 내 집안의 관계는 나만 관계할 뿐입니다, 친구가 내 집안의 내가 관계하는 모든 관계를 떠맡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부부가 돼버리면 신랑이 맡고 있던 모든 관계가 내 관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교회의 초석이 되는 신앙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제자들을 데려 가십니다.
그곳은 아주 번영하는 우상도시였습니다, 그곳의 원주민들은 여전히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고, 그곳으로 이주해 온 헬라 계통의 사람들은 파안 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헤롯 빌립1세가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 지은 흰 대리석의 휘황찬란한 황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번영하는 우상의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봅니다.
너무 초라하고 남루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목수이십니다.
그분을 향하여 사람들은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다, 선생이다, 라고 부른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고백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타이틀이 같이 붙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마태는 무슨 뜻으로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붙여서 기록했을까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 구세주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이 붙어있는 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해주신 그리스도요, 구세주로 오셨다는 뜻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자 분이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서 남자의 동생들을 다 자기의 동생으로 떠맡아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마태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뜻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을 떠안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갖고 있는 관계를 내가 떠맡아야 된다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시동생들이 백수노릇을 하면서 형수에게 세끼 밥을 얻어먹고 빨래며 뭐며 모든 것을 시동생을 위해서 살 때 이 여자가 결혼 이전에 있던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관계하는 아버지를 마치 결혼한 여자가 시아버지를 아버지로 떠맡아야 되는 것처럼 그 관계의 부담을 그대로 끌어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를 관계하듯이 관계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공자님은 아무리 훌륭하셔도, 공자님께 배우고 공자님처럼 살려고 해서 공자님을 모방하고 그래도 공자님이 갖고 계시던 관계를 내가 부담을 안고 떠맡을 필요는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예요, 석가모니가 갖고 있던 관계를 떠맡을 필요는 없어요.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집니다, 그분이 관계하고 있던 그 관계들을 내 관계로 떠맡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친구관계와 같은 거예요, 친구에게 도움을 받고 훌륭한 친구에게 배우고 하는 것처럼 그

렇게 배우면 돼요.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들의 좋은 점을 배우면 되는 것이지, 그들의 관계를 내가 떠맡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면서, 그냥 그리스도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내가 예수님이 관계하셨듯이 그렇게 관계하며 떠맡아야 된다는 부담감을 안겨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친구처럼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세상에서 내가 관계하던 모든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관계를 잘해나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노래해요, ♬ 예수 내 치~인 구♬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도 기존의 내 관계를 잘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다는 의미로 노래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관계해요.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그 여자 분은 시동생 둘에 치여서 9년 동안 남편을 만나기 이전의 관계가 2차 3차 부차적인 삶의 문제로 다 밀려버리고 맙니다.
눈앞에 있는 아무리 미워도 뒹굴고 있는 시동생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그 뒤치다꺼리 해주느라고, 또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용돈도 주어야 되지요.
기존의 관계가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신랑이 된다는 의미이고, 예수님께 시집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집안, 천국, 그 천국에 계신 시아버지, 그 시아버지는 마실도 안 나가십니다, 아파트 경로원에서 노인들과 지내시지도 않아요, 24시간 내 옆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관계하는 천국이 내가 관계해야 될 집안이 돼버리고, 그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내 시아버지이신 것처럼, 그리고 24시간을 며느리 옆에 붙어가지고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온갖 잔소리를 잠도 안 주무시고, 내가 잘 때도 안 자고 나를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시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부담감을 끌어안는 것이 예수 믿는 일이요, 예수님이 내 신랑

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되겠지만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렇게 고난 받고 죽을 것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류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깁니까?
'네가 나를 따르며 나를 믿는다면 내가 관계하고 있는 하나님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부담을 안고 마음에 끌어안아야지, 네 기존의 관계의 삶 속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가서 내 능력으로 한번 잘살아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아버지를 모시고 섬기고 관계하는 그 예수님의 자리에 결합해서 서있지는 못한 것이에요.
그 결합은 오직 십자가사건 이후에만 가능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이것 요구하고 저것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반발을 합니다, 이때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나하고만 둘이서 행복하게 살 것을 생각하느냐?'
야~ 이런 남편이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요즘 같으면 이런 남편은 아내에게 쫓겨나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남편 되신 예수님께서 시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버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당신이 아버지와 천국, 성령님에 대해 맺고 있는 관계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셔서 당신이 몸으로 사시는 동안에 아버지와 천국, 성령을 관계하셨던 것

처럼 우리도 그 관계를 고스란히 떠맡으라는 겁니다.
천국을 신경 써야 되는 게 이 여자 분의 시동생과 똑같아요, 천국이 내 시동생이에요.
그렇게 신경 써야 될 대상이에요, 부담을 안아야 될 대상이라는 얘기지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가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네가 그걸 깨달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베드로가 하나님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안 됐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결혼을 시켜서 당신의 자녀로 삼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아버지의 결심이 없이는 안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어떠하심을 알리기 위하여 예수님 스스로 하셔야 할 일 중에 더 하셔야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더 하셨어야 될 가르침과 더 하셨어야 될 기적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충~분히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결혼할 마음을 먹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담을 안고 관계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도 보고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건 오직 아버지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를 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 내 마음속에 '예수가 바로 내 아들이고 너는 이제 예수와 결혼해서 예수가 나를 관계했던 것처럼 너도 관계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심해서 마음에 넣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할 때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과 부부관계로 돌입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도.

그러니까 도대체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무슨 힘으로 예수님과 사람을 결혼관계에 돌입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아버지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역사해서 '저가 바로 너의 신랑감이요, 동시에 하늘에 있는 예수의 아버지인 하나님인 나를 너도 아버지로 부담을 안고 관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각성시키고 깨우치시고 밀어붙이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설교자가 부담을 안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 목사님들이 자꾸 설교를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교인들이 들을 수 있게, 교인들이 설득될 수 있게, 교인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되게끔 하기 위해 교인들을 위로한다, 교인들의 처지를 생각해서 그들에게 힘을 준다, 이런 걸 신경쓰다보니까 기독교가 기독교가 아닌 것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뽕짝과 팝송이 합쳐져서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가 돼버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시동생들 셋을 떠안는 것보다 더 큰 부담입니다.
24시간 따라붙는 시아버지를 섬겨야 되는 부담이에요.
그런데 이 부담이 이상한 부담이에요, 하나님 한 분에 대한 부담이 너무너무 커서 기존의 예수님과 결혼하기 이전에 이 세상에서 내 몸이 있기 때문에 맺을 수 있었던 관계들이 다 소원하게 됩니다, 다 관심의 3차 4차로 밀려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오직 시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24시간 부담감을 안고, 자면서도 시아버지가 무얼 원하시나 깜짝깜짝 놀라고 깨고 하는 그런 생활 속에 이상하게도 이 세상에서 관계를 맺고 살 때는 상상할 수도 느낄 수도 없었던 자유 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부담감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와 내용이 충만해지더라는 얘깁니다.

우리 마음에 지금 하나님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게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불행의 삶을 살게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친구처럼 생각해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관계가 메인포커스, 메인이벤트이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친구로서 하나님아버지를 친구의 아버지쯤으로 생각해서 도움을 받아서 기존의 관계를 잘 해나가려고 하는 데에 '예수 내 친구'라는 이

고백 속에 기독교의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덧붙일 수 있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 여자가 시동생들 둘 때문에 9년 세월을 그냥 그 가정의 울타리 안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꿈도 없고, 꿈을 가졌던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다 깨지는 거죠.
친구를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친정에 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빠듯한 월급 받아서 시동생들과 함께 좁은 집에서 9년을 사느라, 그러니 한탄이 나오지요?
이 여자의 삶처럼 우리가 그저 예수님이 가계신 천국 신경 쓰고,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신경 쓰느라고 이 세상일 아무것도 못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집와서 자기 동생들 때문에 여유로운 시간 한번 가질 수 없었던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심정, 고맙고 그저 머리에 이고 다녀도 아깝지 않을 아내, 그래서 아내가 잊어버린 장인, 장모님의 생일도 챙기게 되고 아내가 잊어버렸던 친구들도 만나러가게 해주고… 남편이 떠맡아주는 거예요.
시동생들 때문에 헐떡이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의 기존의 관계를 남편이 떠맡아주는 겁니다.

예수님과 결혼해서 예수님의 아버지 24시간 나를 따라다니는 시아버지 같은 그분, 그 하나님 신경 쓰느라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 하나님이 어찌 하면 좋아하실까, 그리고 천국에 가있는 신랑예수님 보고 싶어서 천국만 생각하면서 이 땅의 기존의 관계들이 다 마음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시아버지 신경 쓰고 천국 신경 쓰느라 세상 잊어버린, 그렇게 하기 위해 헐떡거리는 우리를 보시는 하늘아버지께서 알고 봤더니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내가 기존에 맺었던 모든 관계, 아내, 남편, 자식, 부모, 사업, 심지어 내 몸까지도 내 마음이 맺었던 모든 관계들 다 뒤로 제쳐 놓았더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해 가시더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 주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그러므로 남편이신 당신이 맺으셨던 모든 관계를 나의 관계로 떠맡고 당신을 만나기 이전의 이 세상에서의 관계가 2차 3차의 문제로 뒤로 밀려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당신이 신경 쓰셨듯이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신경 쓰면서 살아가고 내 마음을 오직 그 아버지와 당신이 계시는 천국에만 두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신랑예수 모시고 시아버지에게 부담을 안고 살 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자유가 그 부담 속에서 우리에게로 밀려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기존의 이 땅에서 내 몸이 있기 때문에 맺게 되었던 모든 관계, 그것이 사람이든 일이든 그 관계를 공고히 하고 확장시키고 번영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과 심지어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늘아버지까지도 친구관계로 관계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아내 된 자로서 예수님께서 관계하신 관계들에 대해 부담을 안고 내 관계로 떠맡음으로 해서 그 부담 속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며 내가 밀쳐놓은 이 세상의 관계가 아버지 장중에 붙들리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